

# “전기차 구입 고민되네”

“전기차 구입 고민되네.”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최대액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 액수를 최종 결정할 때 쓰이는 ‘차량 가격 상한액’도 기존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춰졌다. 오는 7월부터는 한전이 제공하던 충전 요금 할인 혜택도 사라져 전기차 구매에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 최대액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400~500만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역시 함께 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가 연비, 주행거리, 출고 등을 고려해 차종별 금액을 산정된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정한 고정 보조금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산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가격 상한액도 현재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상한액

이 500만원 줄어 출고가가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고 5,500~8,500만원이면 절반만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을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이달 9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1월 초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원 이하면 전액이 면제되고 140만원을 넘으면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 다만 모든 전기차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소형·경형·소형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이 킬로와트시당 5km 이상, 중·대형의 경우 3.7km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소 요금 할인은 7월부터 종료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는 전기차 충전에 드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 올해부터 보조금 100만원 줄어 7월부터 한전 충전요금할인 종료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은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세급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고,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4년까지 유지된다. 보통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의 7%를 부과하는데 취득세가 140만

한전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를 할인해 주다가 지난해 7월부터 할인을 각각 25%와 10%로 줄였다.

지역 자동차 영업점 관계자는 “내년 기관차를 사러 온 소비자가 신형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고 가격과 보조금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늘었다”며 “앞으로 지급될 전기차 구매보조금 규모와 충전인프라 확충 속도가 전기차 보급 확산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 승차감 개선...안전·편의사양 강화 기아, The 2023 모하비 출시

기아는 대형 SUV 모하비의 연식변경 모델 ‘The 2023 모하비(이하 모하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부품을 개선해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확보하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모하비에 차체와 골격을 연결하는 ‘샤시 프레임 마운트’의 강성을 높이고, 노면 충격과 진동 완화를 위해 서스펜션에 성능이 향상된 속업소버(shock absorber)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바디와 서스펜션의 일체감을 최적화해 힘로

주행 시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확보했다. 고객 의견을 반영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 시스템(MCB) ▲2열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 ▲애프터 블로우 등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화했다.

차량 전면부와 스티어링 휠 등에 신규 기아 엠블럼을 적용해 기아 RV 라인업에 브랜드 정체성을 완성했다. 신규 실내 색상 ‘테라코타 브라운’과 ‘토포 그레이’로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디자인 특화 모델 그라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 등 실의 주요 장식에 블랙

유광 소재를 적용하고 블랙 우드그레인 장식식으로 실내를 마감하는 등 블랙 컬러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보다 강인한 인상을 갖췄다.

올해부터 의무 적용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s) 시험 기준의 강화 요건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추가했다.

기아는 모하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성능을 강조한 디지털 캠페인 영상을 이달 중 공개해 모하비의 매력과 고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 기아, 글로벌 마케팅 펼친다 호주오픈 연계 ‘아레나’ 선포

호주오픈 공식 스폰서인 기아가 후원 21주년을 맞아 공식차량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선다.

기아는 12일(현지시간)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 및 호주오픈 관계자, 라파엘 나달, 딜런 알콧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2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차량은 스포티지 70대, 카니발 50대, EV6 10대 등 총 130대의 차량으로 대회 기간 중 참가 선수, VIP, 대회 관계자 등의 이동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기아는 호주오픈을 맞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브랜드 비전 아래 해양 환경 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에이스 포 오션즈(Aces for Oceans)’ 디지털 캠페인을 실시한다. 에이스 포 오션즈는 호주 오픈 기간 동안 캠페인 영상, SNS, AR게임 등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로 바다가 점령 오염되는 것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의 디지털 캠페인이다.



기아가 12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 및 호주오픈 관계자, 라파엘 나달, 딜런 알콧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2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 제공

기아는 호주오픈의 공식 스폰서로서 대회 기간 중 EV6 전시 부스 운영, 디지털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호주오픈 경기장 중 4번째로 큰 5,000석 규모의 ‘기아 아레나’를 준공하고 현장 방문객 및 글로벌 시청자에게 새롭게 선보인다. 기아 아레나는 이번 호주오픈 공식 경기장으로 운영되며, 대회 기간 이

후에도 다양한 문화, 예술, 스포츠 명사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과 21년동행하면서 글로벌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왔다”며 “향후에도 기아와 호주오픈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 현대차·기아·제네시스 6종 미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아이오닉5·스타리아·EV6·카니발·GV70·X Concept 등 6개 차종이 미국의 ‘2021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021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아이오닉5, 스타리아 등 2개 차종이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현대차 고유의 파라메트릭 픽셀(Parameteric Pixel)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완벽히 적용된 ‘아이오닉 5’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DEA 디자인 상’의 최고상에 이어 2021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이어 수상했다.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인 ‘인사이드 아웃’이 최초로 적용된 모델로 사용자 중심의 감성적 공간을 구현해냈다.

기아는 EV6와 카니발 등 2개 차종이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EV6는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오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가 반영된 최초의 전용 전기차다.

카니발은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나 ‘융장한 볼륨감’을 외장 디자인 콘셉트로 지닌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의 차량이다.

제네시스는 브랜드를 출범한 2015년부터 7년 연속으로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GV70 차량의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워 엠블럼을 쿼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로형상화해 제네시스 고유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쿼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을 동일한 높이로 배열해 넓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제네시스 X Concept의 전면은 브랜드 고유의 품위와 당당함이 느껴지는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과 휠 아치를 관통하는 두 줄 전조등의 조화를 통해 낮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구현했으며 이중 구조 형태의 범퍼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완성했다. /황애란 기자

사진 위부터 현대차 아이오닉5·스타리아, 기아 EV6·카니발, 제네시스 GV70·X Concept.



##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